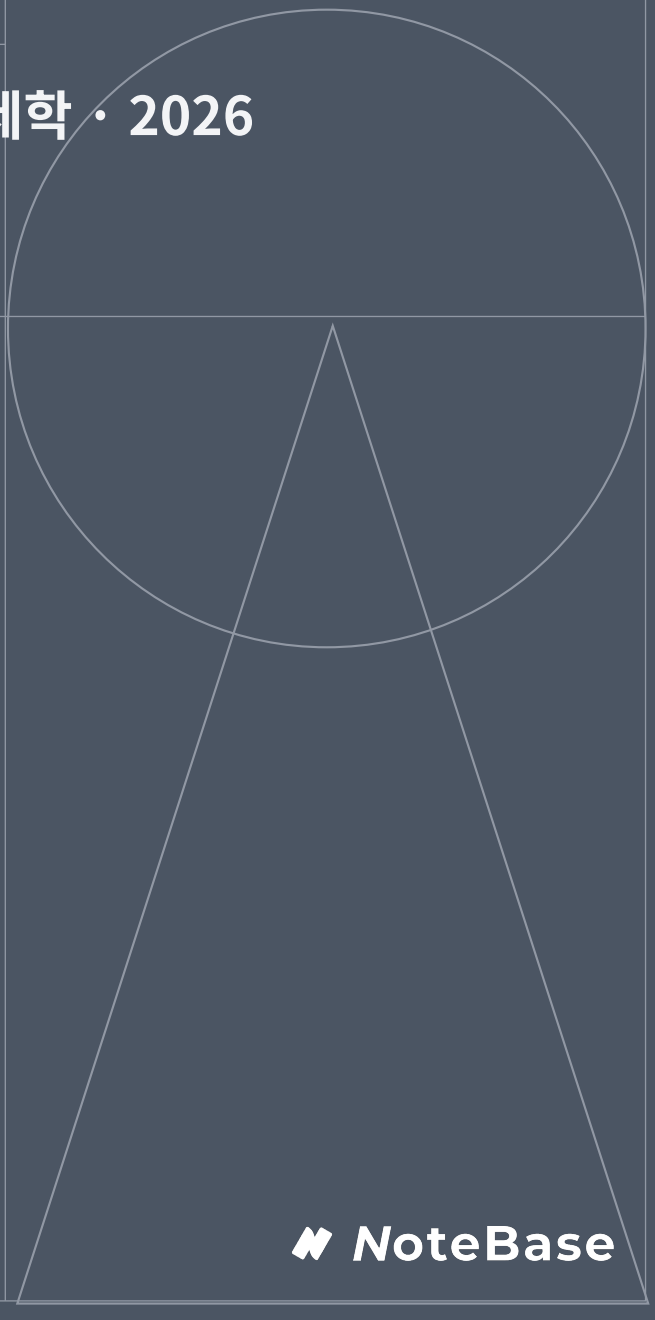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6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6

문 1. 표는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분류된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 재화	㉠
	없음	㉡	㉢

① ㉠에는 공유 자원이 해당한다.

② ㉠의 소비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③ ㉡의 사례로 유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들 수 있다.

④ ㉡의 소비 행태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⑤ ㉢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화를 경합성 여부와 배제성 여부로 나누어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편익이 줄어드는 성질이다.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재화이다.
ㄱ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클럽재 또는 요금재이다.
ㄴ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유자원이다.
ㄷ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ㄱ에는 공유 자원이 해당한다'이다.
- ㄱ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이 아니라 클럽재 또는 요금재이다. 공유자원은 ㄴ처럼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ㄱ의 소비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이다.
- ㄱ은 배제성이 있으므로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무임승차 문제는 주로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에서 발생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ㄴ의 사례로 유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들 수 있다'이다.
- 유료 OTT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시청은 비경합적이므로 ㄴ이 아니라 ㄱ의 사례에 가깝다. ㄴ의 대표 사례는 어장, 목초지, 혼잡한 공공도로처럼 배제는 어렵지만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공유자원이다.

④ O
- ㄴ은 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므로, 개인이 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과잉 이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ㄴ의 소비 행태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⑤ X
- 틀린 부분은 'ㄷ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된다'이다.
- ㄷ은 공공재로, 배제성이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기 쉽다. 시장에 맡기면 대가 지불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져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과소 생산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경합성 없음'과 '배제성 없음'을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ㄱ은 배제성이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약하고, ㄴ은 경합성이 있으므로 공유자원 과잉 이용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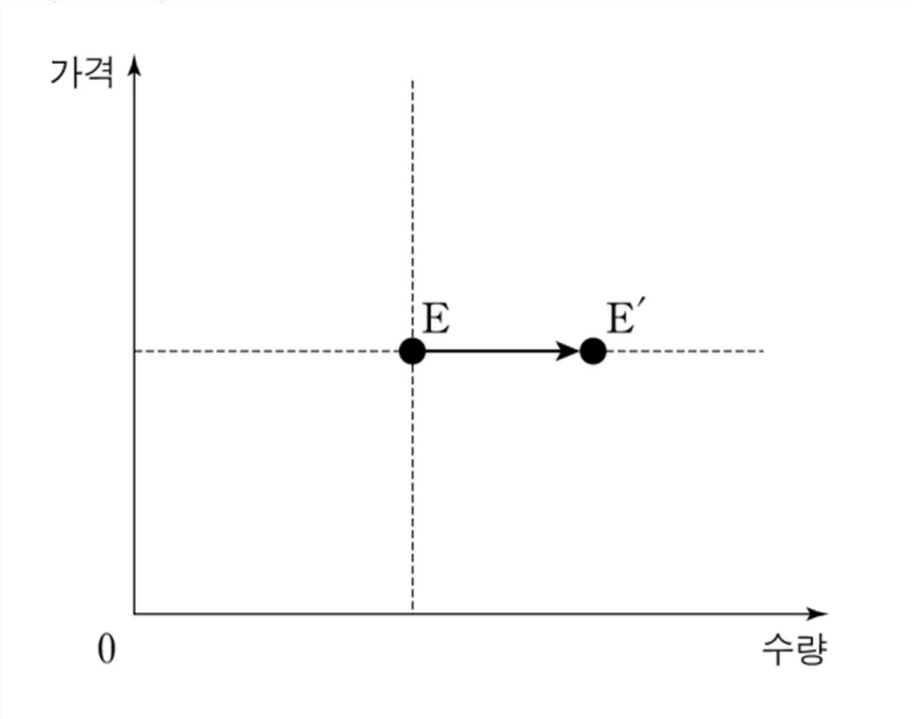
먼저 배제성이 있는지 확인해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다음 경합성이 있는지 확인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지를 판단한다. 배제성 있음·경합성 없음은 클럽재, 배제성 없음·경합성 있음은 공유자원, 둘 다 없음은 공공재이다.

암기 포인트

사적 재화는 둘 다 있음, 클럽재는 배제성만 있음, 공유자원은 경합성만 있음, 공공재는 둘 다 없음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2. 그림은 X재의 시장 균형 E에서 E′으로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 균형 변화를 가져오는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① 수요측 요인: 소비자의 소득 증가, 공급측 요인: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② 수요측 요인: 보완재 가격 하락, 공급측 요인: 생산 기술의 향상

③ 수요측 요인: 보완재 가격 상승, 공급측 요인: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④ 수요측 요인: 대체재 가격 상승, 공급측 요인: 생산자 수의 감소

⑤ 수요측 요인: 대체재 가격 하락, 공급측 요인: 생산 기술의 향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 균형점이 같은 가격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도식을 보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를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비자의 소득 증가는 X재가 정상재일 때 수요 증가 요인이지만, 문제에서 X재가 정상재라고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균형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틀린 표현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이며, 올바르게는 공급 증가 요인인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또는 "생산 기술의 향상"이어야 한다.

② O
- 보완재 가격 하락은 보완재 소비를 늘려 X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생산 기술의 향상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X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수량은 증가하고, 두 이동 폭이 적절하면 그림처럼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
- 보완재 가격 상승은 X재와 함께 소비되는 재화의 이용을 줄여 X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이므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결합되어 균형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틀린 표현은 "보완재 가격 상승"이며, 올바르게는 수요 증가 요인인 "보완재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④ X
- 대체재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X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생산자 수의 감소는 시장 공급량을 줄여 공급 감소를 가져온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균형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으므로, 가격이 그대로인 채 수량만 증가한 그림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 수의 감소"이며, 올바르게는 공급 증가 요인인 "생산자 수의 증가"이어야 한다.

⑤ X
- 대체재 가격 하락은 소비자가 대체재로 이동하게 하므로 X재 수요 감소 요인이다. 생산 기술의 향상은 공급 증가 요인이므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결합되어 균형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틀린 표현은 "대체재 가격 하락"이며, 올바르게는 수요 증가 요인인 "대체재 가격 상승"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그림의 핵심은 수량만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있어야 균형수량 증가가 분명하고, 두 효과가 가격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격 불변도 가능하다. 공급 감소가 들어간 ①, ④는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고, 수요 감소가 들어간 ③, ⑤는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균형점 이동 문제에서는 먼저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읽는다. 수량 증가와 가격 불변이 보이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동시 이동을 우선 찾고, 각 선지가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따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완재 가격 하락은 해당 재화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은 해당 재화 수요 증가, 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이다.

문 3. X재 시장은 소비자 5명과 생산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 갑~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생산자 A~E의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1개씩 1개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소비자	갑	을	병	정	무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1	2	3	4	5
생산자	A	B	C	D	E
최소 요구 금액(만 원)	3	4	5	6	7

① 시장 균형 거래량은 3개, 균형 가격은 5만 원이다.

② 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6만 원이다.

③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④ 정부가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장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⑤ 정부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X재 1개당 보조금이 커질수록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와 각 생산자의 최소 요구 금액을 정렬해 이산적인 시장 균형, 잉여, 소비자 보조금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자는 각자 1개까지만 살 수 있고, 생산자도 각자 1개까지만 팔 수 있다.
소비자의 지불 용의는 갑 1만 원, 을 2만 원, 병 3만 원, 정 4만 원, 무 5만 원이다.
생산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A 3만 원, B 4만 원, C 5만 원, D 6만 원, E 7만 원이다.
균형은 가격에서 사려는 수량과 팔려는 수량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요량은 가격 이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 수이다.
공급량은 가격 이하의 최소 요구 금액을 가진 생산자 수이다.
사회적 잉여는 거래된 소비자의 지불 용의 합계에서 거래된 생산자의 비용 합계를 뺀 값이다.
소비자 보조금이 1개당 s만 원이면 소비자의 유효 지불 용의는 원래 지불 용의에 s를 더한 값처럼 작용한다.

계산 과정

보조금이 없을 때 가격 4만 원에서는 정과 무, 2명이 사고 A와 B, 2명이 팔 수 있으므로 균형 거래량은 2개이다.
이때 균형가격은 4만 원이다.
소비자 잉여는 $(5-4)+(4-4)=1$만 원이고, 생산자 잉여는 $(4-3)+(4-4)=1$만 원이다.
사회적 잉여는 $(5+4)-(3+4)=2$만 원이다.
소비자에게 1개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유효 지불 용의는 3, 4, 5, 6, 7만 원이 된다. 가격 5만 원에서는 수요량 3개, 공급량 3개가 되어 거래량은 3개이고 시장 거래가격은 5만 원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가격은 3만 원이지만, 시장 거래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보조금이 없을 때 균형은 가격 4만 원에서 수요량 2개와 공급량 2개가 일치한다. 틀린 표현은 “거래량은 3개, 균형 가격은 5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거래량은 2개, 균형 가격은 4만 원”이다.

② X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는 조합은 지불 용의 5만 원과 4만 원의 소비자, 최소 요구 금액 3만 원과 4만 원의 생산자이다. 사회적 잉여는 (5 + 4) − (3 + 4) = 2만 원이다. 틀린 표현은 “사회적 잉여는 6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사회적 잉여는 2만 원”이다.

③ X
균형가격 4만 원에서 소비자 잉여는 1만 원, 생산자 잉여도 1만 원이다.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보다 큰 것이 아니라 같다. 틀린 표현은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같다”이다.

④ X
소비자에게 1개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유효 지불 용의가 2만 원씩 올라가므로 거래량은 2개에서 3개로 증가한다. 다만 시장 거래가격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승하고, 소비자가 보조금 차감 후 부담하는 순가격만 3만 원으로 낮아진다. 틀린 표현은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시장 거래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 순부담 가격은 하락한다”이다.

⑤ O
소비자 보조금이 커지면 소비자의 유효 지불 용의가 올라가 수요가 증가한다. 이 표에서는 2만 원 보조금만 보아도 생산자가 받는 시장가격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고 거래량도 2개에서 3개로 늘어 생산자 잉여가 1만 원에서 (5 − 3) + (5 − 4) + (5 − 5) = 3만 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보조금이 커질수록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④는 소비자 보조금의 효과를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순가격과 시장에서 생산자가 받는 거래가격으로 나누어 보지 않게 만드는 선지이다. 소비자 보조금은 소비자 순부담 가격을 낮추지만, 수요를 증가시켜 생산자가 받는 시장가격은 오를 수 있다. ②는 거래되지 않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값을 모두 더하는 실수에서 나오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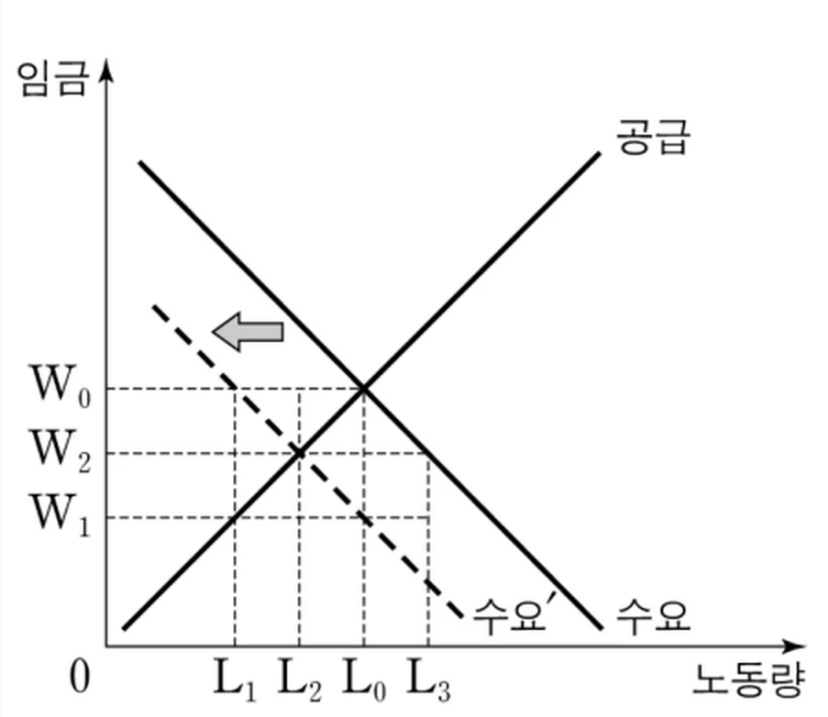
이산적 시장균형 문제는 먼저 가격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춘 뒤, 실제 거래되는 높은 지불 용의 소비자와 낮은 비용 생산자만 골라 잉여를 계산한다. 보조금 문제에서는 법정 지급 대상보다 누가 받는 가격과 누가 부담하는 순가격이 달라지는지를 분리해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비자 보조금은 수요를 위로 밀어 올린다. 소비자 순가격은 내려가지만 생산자가 받는 시장가격과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 수 있다.

문 4. 그림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임금이 완전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경우와 완전 신축적인 경우를 비교할 때 시장 임금의 차이와 고용량의 차이로 옳은 것은?



① 시장 임금의 차이: $W_0 - W_1$, 고용량의 차이: $L_0 - L_1$

② 시장 임금의 차이: $W_0 - W_1$, 고용량의 차이: $L_0 - L_2$

③ 시장 임금의 차이: $W_0 - W_1$, 고용량의 차이: $L_3 - L_1$

④ 시장 임금의 차이: $W_0 - W_2$, 고용량의 차이: $L_2 - L_1$

⑤ 시장 임금의 차이: $W_0 - W_2$, 고용량의 차이: $L_3 - L_2$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임금 하방경직성과 임금 신축성에 따라 새 임금과 고용량이 그래프에서 어디로 결정되는지를 읽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임금, 가로축은 노동량이며, 우상향 곡선은 노동공급, 우하향 곡선은 노동수요이다.
2. 최초 균형은 기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므로 W_0, L_0이다.
3.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점선 수요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임금이 완전히 하방 경직적이면 임금은 W_0에 머물고, 그 임금에서 점선 수요곡선이 요구하는 노동량은 L_1이다.
5.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면 점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새 교점이 균형이므로 임금은 W_2, 고용량은 L_2이다.

핵심 근거

하방경직적 임금의 경우: 임금 W_0, 고용량 L_1이다.
신축적 임금의 경우: 임금 W_2, 고용량 L_2이다.
따라서 시장 임금의 차이는 $W_0 - W_2$, 고용량의 차이는 $L_2 - L_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근거 위치: 하방경직 임금은 W_0, 신축적 임금은 W_2, 하방경직 고용은 L_1, 신축적 고용은 L_2이다.
- 임금 차이를 $W_0 - W_1$로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W_0 - W_2$이다. 고용량 차이도 $L_0 - L_1$이 아니라 $L_2 - L_1$이다.

② X
- 근거 위치: 점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새 교점은 W_2, L_2이다.
- 임금 차이를 $W_0 - W_1$로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W_0 - W_2$이다. 고용량 차이는 $L_0 - L_2$가 아니라 $L_2 - L_1$이다.

③ X
- 근거 위치: 하방경직일 때 고용은 W_0에서 점선 수요곡선과 만나는 L_1이고, 신축적일 때 고용은 새 균형인 L_2이다.
- 임금 차이를 $W_0 - W_1$로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W_0 - W_2$이다. 고용량 차이도 $L_3 - L_1$이 아니라 $L_2 - L_1$이다.

④ O
- 근거 위치: 하방경직 임금은 기존 임금 W_0에 머물고, 신축적 임금은 점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인 W_2로 내려간다.
- 하방경직 고용은 L_1, 신축적 고용은 L_2이므로 임금 차이는 $W_0 - W_2$, 고용량 차이는 $L_2 - L_1$이다.

⑤ X
- 근거 위치: 신축적 임금에서의 새 균형은 W_2, L_2이고, 하방경직 임금에서의 고용은 L_1이다.
- 임금 차이 $W_0 - W_2$는 맞지만, 고용량 차이를 $L_3 - L_2$로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L_2 - L_1$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 감소 후 점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을 새 균형으로 읽는 것과, 임금이 W_0에서 내려가지 못할 때의 고용량을 점선 수요곡선 위 L_1로 읽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L_3은 임금 W_2에서 공급자가 공급하려는 노동량에 해당하므로 실제 고용량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하방경직성 문항에서는 먼저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수평선에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노동량을 찾고, 임금 신축성 문항에서는 이동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새 교점을 찾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수요 감소 때 하방경직은 W_0, L_1, 신축성은 새 교점 W_2, L_2이다.

NoteBase

문 5. X재 시장의 수요 곡선은 $Q^D = 100 - 2P$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Q^D,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가격이다)

<보기>

ㄱ.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과 2의 범위 내에 있다.

ㄴ. 시장 균형 가격이 10일 때,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이다.

ㄷ.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ㄹ. 시장 균형 가격이 25일 때, X재 시장 판매액은 최대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수요곡선 $Q^D = 100 - 2P$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함수는 $Q^D = 100 - 2P$이다.
구해야 할 값: 가격 P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그리고 시장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가격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통 절댓값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수요곡선에서 수요량이 양수인 가격 범위는 $0 < P < 50$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 =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
이다. 주어진 수요함수에서 $dQ/dP = -2$, $Q = 100 - 2P$이므로
$E_d = \left| -2 \cdot \frac{P}{100 - 2P} \right| = \frac{2P}{100 - 2P} = \frac{P}{50 - P}$
이다.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TR = P \cdot Q = P(100 - 2P) = 100P - 2P^2$
를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탄력성 식은 $E_d = \frac{P}{50-P}$이다.
2. $P = 10$이면 $Q = 100 - 20 = 80$이고, $E_d = \frac{20}{80} = 0.25$이다.
3. 가격이 상승할수록 $E_d = \frac{P}{50-P}$의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므로 탄력성은 커진다.
4. 총수입은 $TR = 100P - 2P^2$이고, 이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이다.
5. 총수입 극대화 조건은 $\frac{dTR}{dP} = 100 - 4P = 0$이므로 $P = 25$에서 시장 판매액이 최대가 된다.

선지 판단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맞으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ㄱ의 '0과 2의 범위 내'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0 < P < 50$에서 탄력성 $E_d = \frac{P}{50-P}$은 0에 가까운 값부터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도 틀리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ㄷ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상승하면 $E_d = \frac{P}{50-P}$가 커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③ O

- ㄴ은 맞다. $P = 10$이면 $Q = 80$이고 $E_d = \frac{20}{80} = 0.25$이다. ㄹ도 맞다. $TR = 100P - 2P^2$는 $P = 25$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ㄴ, ㄹ 조합이 정답이다.

④ X

- ㄷ과 ㄹ은 포함되어 있으나 ㄱ이 틀리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ㄱ은 탄력성의 범위를 0과 2 사이로 제한한 것이 오류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50에 가까워질수록 탄력성이 2를 넘어 계속 커진다.

⑤ X

- ㄴ과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ㄷ은 가격 상승 시 탄력성이 작아진다고 했지만, 올바르게는 가격 상승 시 탄력성이 커진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선형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다. $Q^D = 100 - 2P$의 기울기 -2는 일정하지만, 탄력성 $E_d = \frac{P}{50-P}$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총수입은 탄력성이 1인 지점, 즉 이 문제에서는 $P = 25$에서 최대가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함수 문제가 나오면 먼저 dQ/dP를 구하고, $E_d =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에 대입한다. 총수입 극대화는 $TR = P \cdot Q$를 만든 뒤 미분하거나, 직선 수요곡선의 중점에서 탄력성이 1이 된다는 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곡선은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일정하지 않다. 총수입은 탄력성 1인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

NoteBase

문 6.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A기업의 고정 비용은 10,000원이고, 현 시점에서 평균 비용의 최저점인 3,000원에 10개를 생산하고 있다. X재의 시장 가격이 2,500원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윤 극대화를 위해 A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②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의 한계 비용은 3,000원이다.

③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2,000원이다.

④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은 5,000원의 손실을 실현하고 있다.

⑤ A기업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10,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생산 결정에서 평균비용, 평균가변비용, 한계비용, 조업중단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고정비용 10,000원, 현재 생산량 10개, 현재 생산량에서 평균비용 3,000원, 시장가격 2,5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비용, 평균가변비용, 손실, 조업중단 여부이다.
주의할 조건: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에서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다.

사용할 공식

총비용 = 평균비용 × 생산량
평균가변비용 = (총비용 - 고정비용) / 생산량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조업중단 기준은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작은지 여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현재 생산량 10개에서 평균비용과 고정비용이 주어져 있으므로 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라는 조건으로 한계비용을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현재 생산량에서 총비용은 3,000원 × 10개 = 30,000원이다.
2. 총가변비용은 총비용 30,000원 - 고정비용 10,000원 = 20,000원이다.
3. 평균가변비용은 20,000원 / 10개 = 2,000원이다.
4. 총수입은 가격 2,500원 × 10개 = 25,000원이다.
5. 현재 손실은 총수입 25,000원 - 총비용 30,000원 = -5,000원이므로 5,000원의 손실이다.
6. 생산을 중단하면 고정비용 10,000원은 그대로 부담하므로 손실은 1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현재 생산량 10개는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므로 이때 한계비용은 평균비용과 같은 3,000원이다. 시장가격 2,500원이 한계비용 3,000원보다 낮으므로 생산량을 늘리면 추가 생산의 비용이 가격보다 커져 이윤이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② O
-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평균비용곡선을 교차하므로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과 같은 3,000원이다.

③ O
- 현재 생산량에서 총비용은 30,000원이고 고정비용은 10,000원이므로 총가변비용은 20,000원이다. 이를 10개로 나누면 평균가변비용은 2,000원이다.

④ O
- 현재 총수입은 25,000원이고 총비용은 30,000원이므로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5,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⑤ O
- 단기에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용 10,000원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조업중단 시 손실은 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가격 2,500원이 평균비용 3,000원보다 낮다는 사실만 보고 바로 조업중단을 떠올리는 것이다. 단기 조업중단은 가격과 평균비용이 아니라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을 비교한다. 이 문항에서는 가격 2,500원이 평균가변비용 2,000원보다 크므로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조업중단보다 손실이 작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문제는 먼저 한계비용과 가격을 비교해 생산량 조정 방향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을 비교해 조업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평균비용 최저점에서는 한계비용 = 평균비용이라는 관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비용 최저점에서는 MC = AC이고, 단기 조업중단 기준은 P < AVC이다. P가 AC보다 낮아도 P가 AVC보다 크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고정비용 전부를 잃는 것보다 낫다.

NoteBase

문 7. 표는 소비자 갑, 을, 병의 X재, Y재에 대한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두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갑, 을, 병만 존재하고 각 제품을 두 개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기업은 X재, Y재를 각각 단품으로 혹은 묶어서 판매할 수 있고, 두 재화의 한계 비용은 각각 2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단위: 만 원)

구분	X재	Y재
갑	6	5
을	5	10
병	3	11

① X재의 가격을 3만 원으로 설정한다.

② Y재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설정한다.

③ X재와 Y재를 묶은 상품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설정한다.

④ 갑, 을, 병이 각각 X재와 Y재를 모두 구입하도록 가격을 설정한다.

⑤ 기업이 극대화하는 이윤은 21만 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묶음판매에서 소비자별 최대지불용의와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혼합 묶음판매의 이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의 최대지불용의는 X재 6만 원, Y재 5만 원이므로 묶음가치는 11만 원이다.
을의 최대지불용의는 X재 5만 원, Y재 10만 원이므로 묶음가치는 15만 원이다.
병의 최대지불용의는 X재 3만 원, Y재 11만 원이므로 묶음가치는 14만 원이다.
X재와 Y재의 한계비용은 각각 2만 원이므로 단품 1개 판매 이윤은 가격에서 2만 원을 뺀 값이고, 묶음 1개 판매 이윤은 묶음가격에서 4만 원을 뺀 값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품 판매 이윤은 $p_X - 2$ 또는 $p_Y - 2$에 구매자 수를 곱해 구한다.
묶음 판매 이윤은 $p_B - 4$에 묶음 구매자 수를 곱해 구한다.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상품을 구매하므로, 혼합 묶음판매에서는 단품가격과 묶음가격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계산 과정

단품만 판매하면 X재는 가격 5만 원에서 갑과 을이 구매하여 이윤이 $(5-2)\times 2 = 6$만 원이고, Y재는 가격 10만 원에서 을과 병이 구매하여 이윤이 $(10-2)\times 2 = 16$만 원이다. 단품 판매 총이윤은 22만 원이다.
묶음만 판매하면 묶음가치가 갑 11만 원, 을 15만 원, 병 14만 원이다. 가격 11만 원이면 세 명이 구매하여 이윤이 $(11-4)\times 3 = 21$만 원이고, 가격 14만 원이면 두 명이 구매하여 이윤이 $(14-4)\times 2 = 20$만 원이며, 가격 15만 원이면 한 명만 구매하여 이윤이 11만 원이다.
혼합 묶음판매에서는 X재 가격 6만 원, Y재 가격 11만 원, 묶음가격 15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X재를, 을은 묶음을, 병은 Y재를 구매한다. 총이윤은 X재 $6-2 = 4$만 원, 묶음 $15-4 = 11$만 원, Y재 $11-2 = 9$만 원의 합인 24만 원이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에는 묶음상품 가격 15만 원 설정이 포함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X재 가격을 3만 원으로 설정하면 세 명이 X재를 살 수 있지만 X재 1개당 이윤은 1만 원에 그쳐 X재 이윤이 3만 원에 불과하다. 이윤극대화 혼합 묶음판매에서는 갑에게 X재를 6만 원에 팔 수 있으므로 틀린 표현은 "X재의 가격을 3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X재 가격 6만 원을 사용한다.

② X
Y재 가격 10만 원은 단품만 판매할 때 Y재 이윤을 크게 만드는 가격이지만, 전체 이윤극대화 전략에서는 병에게 Y재를 11만 원에 팔고 을에게는 묶음을 15만 원에 파는 편이 더 유리하다. 틀린 표현은 "Y재의 가격을 10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혼합 묶음판매에서 Y재 가격 11만 원을 사용한다.

③ O
묶음가격을 15만 원으로 두면 을의 X재와 Y재 합산 최대지불용의 15만 원에 맞아 을이 묶음을 구매한다. 동시에 X재 6만 원, Y재 11만 원을 함께 설정하면 갑은 X재, 병은 Y재를 구매하므로 총이윤이 24만 원으로 커진다.

④ X
갑, 을, 병이 모두 X재와 Y재를 구매하도록 가격을 낮추면 지불용의가 가장 낮은 갑의 묶음가치 11만 원 이하로 맞추어야 하므로 이윤이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갑, 을, 병이 각각 X재와 Y재를 모두 구입"이고, 올바르게는 갑은 X재, 을은 묶음, 병은 Y재를 구매하도록 가격을 설정한다.

⑤ X
21만 원은 묶음가격 11만 원으로 세 명 모두에게 묶음만 판매할 때의 이윤 $(11-4)\times 3$이다. 혼합 묶음판매를 이용하면 총이윤은 24만 원이므로 틀린 표현은 "21만 원"이고, 올바르게는 24만 원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묶음만 판매하는 경우와 혼합 묶음판매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⑤의 21만 원은 순수 묶음판매의 최대이윤이고, ③의 15만 원은 을에게 묶음을 팔면서 갑과 병에게 각각 단품을 파는 혼합 묶음판매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묶음판매 문제는 먼저 각 소비자의 X재 가치, Y재 가치, 합산 가치를 정리한 뒤 단품판매, 순수 묶음판매, 혼합 묶음판매의 이윤을 각각 비교한다. 한 소비자에게는 묶음을 팔고 다른 소비자에게는 단품을 파는 조합이 가능한지를 마지막에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혼합 묶음판매는 "고르게 좋아하는 소비자에게 묶음, 한쪽만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단품"을 팔 때 순수 묶음판매보다 이윤이 커질 수 있다.

NoteBase

문 8. 기업 A와 B는 상품 생산을 위해 ○○ 지역의 호수 자원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각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호수에 오염을 배출하거나 정화 시설을 갖춰 오염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다. 표는 오염 배출 여부에 따른 A와 B의 보수를 (A의 보수, B의 보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기업 B	
		오염 배출	오염 배출 안함
기업 A	오염 배출	(30, 30)	(50, 20)
	오염 배출 안함	(20, 50)	(45, 45)

① 내쉬 균형은 A와 B 모두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② B의 우월 전략은 오염을 배출하는 것이다.

③ 두 기업 간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내쉬 균형은 존재한다.

④ 각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 선택을 하면, A와 B 모두 가장 큰 보수를 얻게 된다.

⑤ 각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 선택을 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 오염 배출 문제가 해결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표에서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임이론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월전략: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내쉬균형: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어느 한쪽도 혼자 전략을 바꿔 보수를 높일 수 없는 조합이다.
이 보수표에서는 A도 B도 상대가 오염을 배출하든 배출하지 않든 '오염 배출'을 선택할 때 보수가 더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내쉬 균형은 A와 B 모두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이다.
- 실제로는 A와 B 모두 오염을 배출하는 조합이 내쉬균형이다. B가 오염 배출이면 A는 오염 배출 30이 오염 배출 안 함 20보다 크고, A가 오염 배출이면 B도 오염 배출 30이 오염 배출 안 함 20보다 크다.

② O
- B의 우월전략은 오염 배출이다. A가 오염 배출이면 B는 오염 배출 30이 오염 배출 안 함 20보다 크고, A가 오염 배출 안 함이면 B는 오염 배출 50이 오염 배출 안 함 45보다 크다.

③ X
- 틀린 부분은 '두 기업 간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이다.
- 실제로는 A와 B 모두 오염 배출이 우월전략이므로 우월전략 균형은 두 기업 모두 오염 배출하는 조합이다. 이 조합은 내쉬균형이기도 하다.

④ X
- 틀린 부분은 'A와 B 모두 가장 큰 보수를 얻게 된다'이다.
- 실제로 각 기업이 자신의 우월전략을 선택하면 보수는 (30, 30)이 된다. 각 기업의 최대 보수 50은 자신은 오염을 배출하고 상대방은 오염을 배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므로 두 기업이 동시에 얻을 수 없다.

⑤ X
- 틀린 부분은 '정부의 개입 없이 오염 배출 문제가 해결된다'이다.
- 실제로 각 기업의 개별 최적 선택은 모두 오염 배출로 이어진다. 두 기업 모두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조합 (45, 45)이 공동으로 더 좋지만, 개별 유인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조합이 유지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사회적으로 더 좋은 결과와 개별 기업의 우월전략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45, 45)는 두 기업 모두에게 (30, 30)보다 좋지만, 한 기업이 혼자 오염 배출로 바꾸면 50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기업별로 상대방의 선택을 하나씩 고정하고 자신의 두 보수를 비교한다. 상대방의 두 경우 모두 같은 전략이 더 크면 그 전략이 우월전략이고,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이 내쉬균형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죄수의 딜레마형 보수표에서는 개인의 우월전략은 배반 또는 오염 배출이고, 그 결과는 공동으로 가장 좋은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문 9. 10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각종 재해를 당할 확률은 20%이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가치는 25억 원이 되며, 재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회사는 100억 원 전체를 보상해 준다. 갑의 자산 가치(W)에 대한 효용 함수가 $U(W)=2\sqrt{W}$일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W는 갑의 자산 가치를 억 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① 갑의 기대 가치의 효용은 기대 효용보다 크다.

② 갑의 부동산에 대한 확실성 등가는 81억 원이다.

③ 갑의 부동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4억 원이다.

④ 갑의 부동산에 대한 공정 보험료는 15억 원이다.

⑤ 갑의 부동산에 대한 최대 보험료는 20억 원보다 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효용, 확실성 등가,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의 관계를 이용해 위험회피적 개인의 보험 가입 판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초기 부동산 가치 100억 원, 재해 확률 20%, 재해 발생 시 부동산 가치 25억 원, 효용함수 $U(W)=2\sqrt{W}$이다.
주의할 조건: W는 억 원 단위의 자산 가치이다. 보험이 없을 때 자산은 재해 발생 시 25억 원, 재해 미발생 시 100억 원이다.

사용할 공식

기대자산가치: $E(W)=pW_1+(1-p)W_2$
기대효용: $EU=pU(W_1)+(1-p)U(W_2)$
확실성 등가: $U(CE)=EU$
위험 프리미엄: $RP=E(W)-CE$
공정 보험료: 기대손실액
최대 보험료: 보험 가입 후 확실한 자산의 효용이 무보험 기대효용과 같아지는 보험료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재해 여부에 따라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불확실성 문제이고, 효용함수가 오목한 형태이므로 기대효용과 확실성 등가를 계산해 보험료 판단을 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보험이 없을 때 기대자산가치는 $E(W) = 0.2 \times 25 + 0.8 \times 100 = 85$억 원이다.
2. 기대자산가치의 효용은 $U(E(W)) = 2\sqrt{85}$이고, 이는 약 18.44이다.
3. 보험이 없을 때 기대효용은 $EU = 0.2 \times 2\sqrt{25} + 0.8 \times 2\sqrt{100} = 0.2 \times 10 + 0.8 \times 20 = 18$이다.
4. 확실성 등가는 $2\sqrt{CE} = 18$에서 $\sqrt{CE} = 9$, 따라서 $CE = 81$억 원이다.
5. 위험 프리미엄은 $E(W) - CE = 85 - 81 = 4$억 원이다.
6. 공정 보험료는 기대손실액이므로 $0.2 \times (100 - 25) = 15$억 원이다.
7. 최대 보험료 P는 보험 가입 후 확실한 자산 $100 - P$의 효용이 18과 같아지는 값이다. $2\sqrt{100 - P} = 18$이므로 $100 - P = 81$, 따라서 $P = 19$억 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기대자산가치의 효용은 $2\sqrt{85} \approx 18.44$이고 기대효용은 18이다. 따라서 갑의 기대 가치의 효용은 기대효용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확실성 등가는 $2\sqrt{CE} = 18$을 만족하는 값이므로 $CE = 81$억 원이다. 따라서 확실성 등가가 81억 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③ O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자산가치 85억 원에서 확실성 등가 81억 원을 뺀 값이다. $85 - 81 = 4$이므로 위험 프리미엄은 4억 원이다.

④ O
공정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기대지급액, 즉 기대손실액이다. 손실액은 $100 - 25 = 75$억 원이고 재해 확률은 20%이므로 $0.2 \times 75 = 15$억 원이다.

⑤ X
최대 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확실한 자산이 확실성 등가 81억 원이 되게 하는 금액이다. $100 - P = 81$이므로 $P = 19$억 원이다. 틀린 표현은 "20억 원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최대 보험료는 19억 원으로 20억 원보다 작다"이다.

계산 결과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보험료의 기준을 혼동하는 것이다. ④의 공정 보험료는 기대손실액 15억 원이고, ⑤의 최대 보험료는 갑이 실제로 낼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19억 원이다. 기대자산가치 85억 원과 확실성 등가 81억 원의 차이 4억 원을 공정 보험료나 최대 보험료로 착각하면 선지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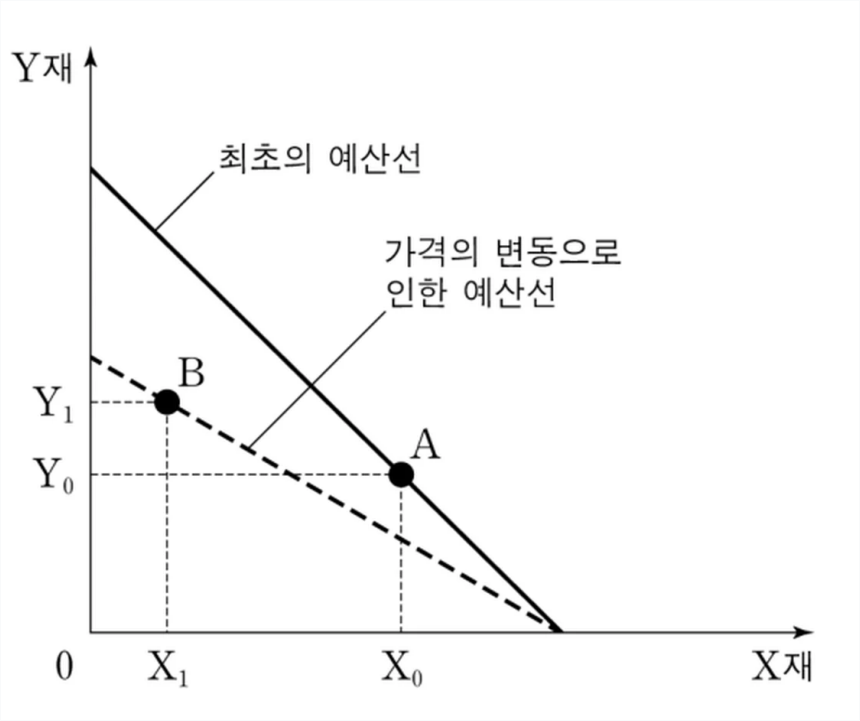
위험과 보험 문제는 먼저 무보험 상태의 기대자산가치와 기대효용을 구하고, 그 기대효용과 같은 확실한 자산을 찾아 확실성 등가를 계산한다. 그다음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자산가치와 확실성 등가의 차이로, 공정 보험료는 기대손실액으로, 최대 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확실한 자산이 확실성 등가가 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회피자의 핵심 관계는 기대자산가치 85 > 확실성 등가 81이고, 위험 프리미엄은 4, 공정 보험료는 기대손실 15, 최대 보험료는 19이다.

NoteBase

문 10. 소비자인 갑은 예산 제약하에서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 그림은 X재 또는 Y재의 가격 변동 전 갑의 최적 소비점 A와 가격 변동 후 최적 소비점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Y재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ㄴ. 갑의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은 감소하였다.

ㄷ.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갑의 Y재 소비의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보다 크다.

ㄹ. 갑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산선의 절편 변화와 최적소비점 이동을 보고 가격 변화, 최대구입량,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실질소득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X축 절편과 Y축 절편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변했는지 확인한다.
2. 예산선의 회전 방향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는지 판단한다.
3. A에서 B로의 소비량 변화와 가격효과의 분해를 보기 ㄱ~ㄹ에 연결한다.

핵심 근거

가격 변동 후 예산선은 최초 예산선보다 Y축 절편이 낮아졌지만 X축 절편은 그대로이다. 같은 소득에서 Y재 최대구입량만 감소했으므로 Y재 가격이 상승했고 X재 가격과 X재 최대구입량은 변하지 않았다.
새 예산선은 최초 예산선보다 안쪽에 있으므로 구매 가능한 상품묶음의 범위가 줄어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최적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Y재 소비가 Y0에서 Y1로 증가했다. Y재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는 Y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실제 Y재 소비가 늘었다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ㄴ의 틀린 표현은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은 감소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가격 변동 후 예산선의 X축 절편이 그대로이므로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은 변하지 않았다.

② O
ㄱ과 ㄹ이 모두 옳다. ㄱ은 가격 변동 후 예산선의 Y축 절편이 낮아진 점에서 확인된다. ㄹ은 새 예산선이 최초 예산선보다 안쪽에 있어 구매 가능한 영역이 줄어든 점에서 확인된다.

③ X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은 X축 절편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ㄷ의 틀린 표현은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보다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Y재 가격 상승에도 Y재 소비가 증가했으므로 Y재 소비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④ X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Y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인데, B에서는 Y재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소득효과가 더 크다.

⑤ X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다. X축 절편이 그대로이므로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Y재 소비 증가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컸음을 뜻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최적소비점 B의 X재 소비량이 X0에서 X1로 줄어든 것을 X재 최대 소비 가능량 감소로 착각하게 하는 점이다. 최대 소비 가능량은 실제 선택량이 아니라 예산선의 축 절편으로 판단한다. 또 Y재 가격 상승 후 Y재 소비가 늘어난 것은 대체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 결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산선 문제에서는 먼저 축 절편을 본다. X축 절편이 그대로이면 X재 최대구입량은 그대로이고, Y축 절편이 낮아지면 Y재 가격 상승이다. 가격 상승 재화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면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편은 최대구입량, 안쪽 이동은 실질소득 감소, 가격 상승 재화의 소비 증가에는 소득효과 우위가 연결된다.

NoteBase

문 11. X재 시장에는 기업 A, B만 존재하고 A가 먼저 Q_A를 결정하면 B가 순차적으로 Q_B를 결정하는 슈타켈베르크 경쟁을 가정하자. X재 시장의 역수요 함수는 $P = 50 - Q^D$이고 X재 생산에 따른 A와 B의 한계비용은 각각 20과 10일 때, 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 Q^D, Q_A, Q_B는 각각 X재의 가격, X재의 수요량, 기업 A의 생산량, 기업 B의 생산량이다)

① Q_A: 10, Q_B: 15

② Q_A: 10, Q_B: 20

③ Q_A: 10, Q_B: 30

④ Q_A: 15, Q_B: 20

⑤ Q_A: 15, Q_B: 1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슈타켈베르크 수량경쟁에서 후발기업 B의 반응함수를 먼저 구한 뒤, 선도기업 A가 그 반응을 예상하고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는 $P = 50 - Q^D$이고 총수요량은 $Q^D = Q_A + Q_B$이다.
A의 한계비용은 20, B의 한계비용은 10이다.
A가 먼저 Q_A를 정하고, B가 이를 보고 Q_B를 정한다.
구해야 할 값은 A의 최적 생산량 Q_A와 B의 최적 생산량 Q_B이다.

사용할 공식

B의 이윤은 $\pi_B = (P - 10)Q_B = (50 - Q_A - Q_B - 10)Q_B$이다.
따라서 $\pi_B = (40 - Q_A - Q_B)Q_B$이고, B의 반응함수는 $\frac{\partial \pi_B}{\partial Q_B} = 40 - Q_A - 2Q_B = 0$에서 구한다.
A는 이 반응함수를 자기 이윤식에 대입해 Q_A를 선택한다. 슈타켈베르크 경쟁에서는 선도기업이 후발기업의 최적반응을 예상하므로 이 순서의 역산이 필요하다.

NoteBase

계산 과정

1. B의 반응함수를 구한다.
$40 - Q_A - 2Q_B = 0$
$Q_B = 20 - \frac{1}{2}Q_A$

2. 이를 이용해 시장가격을 A의 생산량만으로 나타낸다.
$P = 50 - Q_A - \left(20 - \frac{1}{2}Q_A\right) = 30 - \frac{1}{2}Q_A$

3. A의 이윤식을 세운다.
$\pi_A = (P - 20)Q_A = \left(30 - \frac{1}{2}Q_A - 20\right)Q_A$
$\pi_A = \left(10 - \frac{1}{2}Q_A\right)Q_A = 10Q_A - \frac{1}{2}Q_A^2$

4. A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적용한다.
$\frac{\partial \pi_A}{\partial Q_A} = 10 - Q_A = 0$
$Q_A = 10$

5. B의 반응함수에 대입한다.
$Q_B = 20 - \frac{1}{2} \times 10 = 15$
따라서 균형 생산량은 $Q_A = 10, Q_B = 1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가 $Q_A = 10$, $Q_B = 15$이므로 옳다.

② X
- $Q_A = 10$일 때 B의 반응함수는 $Q_B = 20 - \frac{1}{2} \times 10 = 15$이다. 틀린 표현은 $Q_B = 20$이고, 올바르게는 $Q_B = 15$이다.

③ X
- A의 최적 생산량 $Q_A = 10$은 맞지만, B의 최적 생산량은 30이 아니라 15이다. 틀린 표현은 $Q_B = 30$이고, 올바르게는 $Q_B = 15$이다.

④ X
- A의 선도기업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Q_A = 10$이 나온다. 틀린 표현은 $Q_A = 15$, $Q_B = 20$이고, 올바르게는 $Q_A = 10$, $Q_B = 15$이다. 특히 $Q_A = 15$라면 B의 반응량도 $Q_B = 20 - \frac{1}{2} \times 15 = 12.5$가 된다.

⑤ X
- A의 최적 생산량은 15가 아니라 10이다. 또한 $Q_A = 15$라면 B의 반응량은 10이 아니라 12.5이다. 틀린 표현은 $Q_A = 15$, $Q_B = 10$이고, 올바르게는 $Q_A = 10$, $Q_B = 15$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A와 B를 동시에 쿠르노처럼 푸는 것이 아니라, A가 B의 반응함수를 예상한다는 순차게임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B의 생산량을 독립적으로 고정하거나, $Q_B = 20 - \frac{1}{2}Q_A$를 A의 이윤식에 대입하지 않으면 ②, ③, ④, ⑤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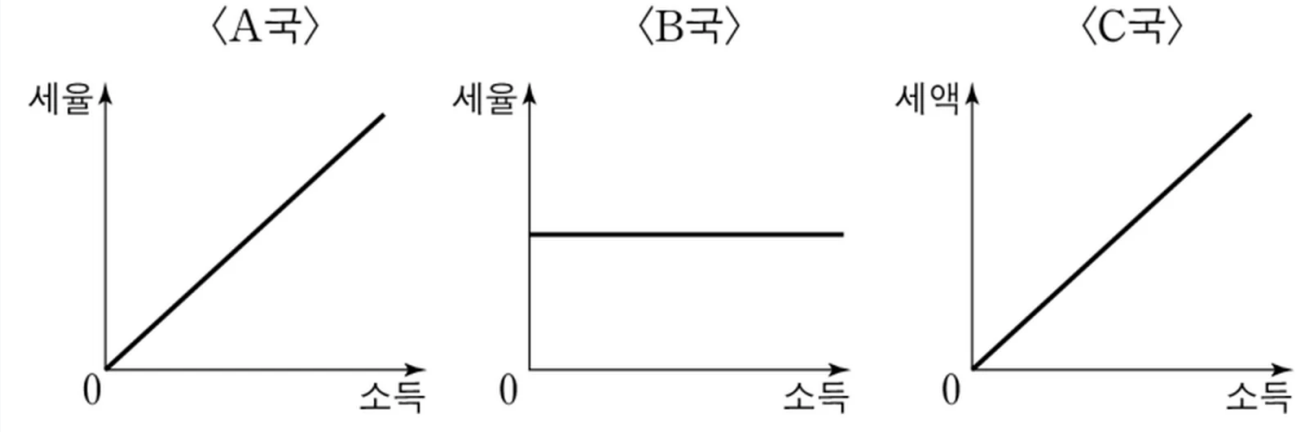
슈타켈베르크 수량경쟁은 후발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으로 반응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반응함수를 선도기업의 이윤식에 대입해 선도기업의 최적 생산량을 구한 다음, 다시 후발기업 생산량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슈타켈베르크 문제는 '후발 반응함수 먼저, 선도기업 이윤식에 대입, 다시 후발 생산량 대입'의 순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그림은 A국, B국, C국의 소득과 세율 또는 세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② B국은 역진적 소득세 정책을 적용한다.

③ C국은 모든 국민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B국은 고소득자에게, C국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⑤ A국의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율 그래프와 소득-세액 그래프에서 누진세, 비례세, 조세 부담의 방향을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A국과 B국은 세로축이 세율이고, C국은 세로축이 세액임을 먼저 확인한다.
2. 세율이 소득과 함께 높아지면 누진세, 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로 판단한다.
3. 세액이 소득에 비례해 직선으로 증가하면 평균세율은 일정하므로 비례세와 같은 구조로 판단한다.

핵심 근거

세 가지 조세 구조는 평균세율(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떻게 변하는지로 엄밀하게 구분된다. 평균세율이 상승하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하락하면 역진세이다.

A국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상승하므로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다. B국은 소득이 달라도 세율이 일정하므로 평균세율이 변하지 않는 비례세 구조이고, C국은 세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역시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구조이다. 즉 B국과 C국은 서로 다른 축으로 그려졌을 뿐 평균세율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이므로, 두 나라가 서로 반대되는 소득계층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근거 위치: A국 그래프는 세로축이 세율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우상향 직선이다.
-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O
- 근거 위치: B국 그래프는 세로축이 세율이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수평선이다.
- 평균세율만 놓고 보면 B국은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다만 비례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지 못하고, 같은 세율이라도 소득 대비 실질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무겁게 작용한다.
- 교과서에서는 비례세의 이러한 성격을 '역진적'이라고 표현하므로, ②는 조세 부담의 방향을 서술한 옳은 진술로 인정된다.

③ O
- 근거 위치: C국 그래프는 세로축이 세액이고, 세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원점에서 우상향한다.
- 세액이 소득에 비례하면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이 일정하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④ X
- 근거 위치: B국은 세율이 일정하고, C국은 세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틀린 표현: "B국은 고소득자에게, C국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올바르게는 B국과 C국 모두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구조이므로 특정 소득계층에게 서로 반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⑤ O
- 근거 위치: A국 그래프는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다.
- 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득 중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높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세로축이 모두 같은 항목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 A국과 B국은 세율 그래프이고 C국은 세액 그래프이므로, C국의 우상향 직선을 세율 상승으로 읽으면 안 된다. 또한 세율이 일정한 경우와 세액이 소득에 비례하는 경우는 모두 평균세율이 일정한 구조로 연결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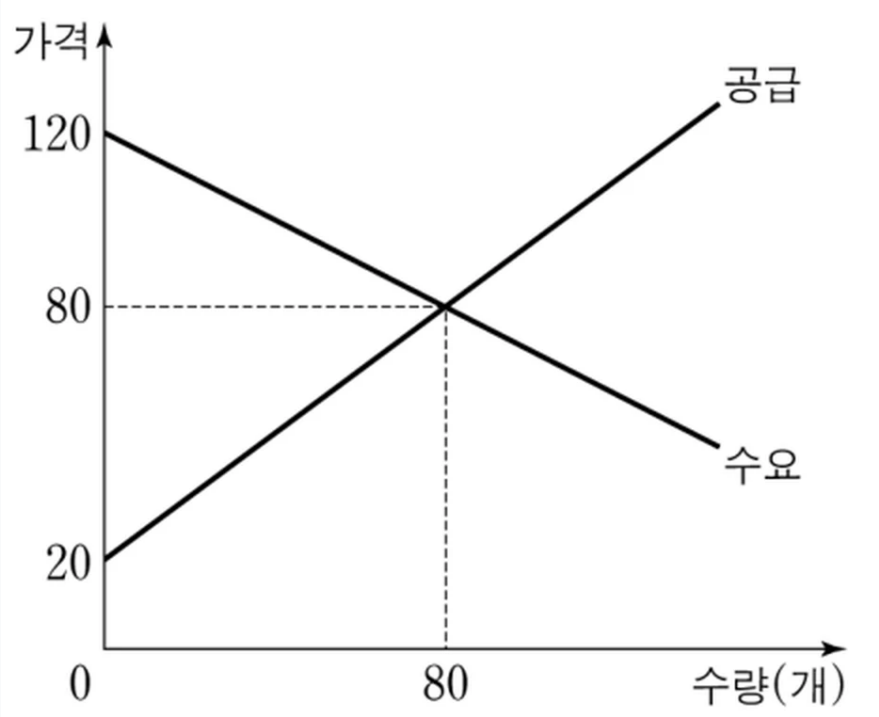
세금 그래프 문제에서는 먼저 세로축이 세율인지 세액인지 구분한다. 소득이 늘어날 때 평균세율이 올라가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내려가면 역진세로 판단한다. 세액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 일정하므로 비례세로 판단한다. 선지에서 비례세를 '역진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래프 해석 자체가 틀린 선지가 따로 있으면 그것을 정답으로 고른다.

암기 포인트

평균세율이 오르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내리면 역진세이다. 세율 수평선과 세액 원점 우상향 직선은 모두 평균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NoteBase

문 13. 그림은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은 생산 측면에서만 개당 일정액의 외부 효과가 매 시기마다 동일하게 발생하고, t시기 X재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40개이다. t+1시기에는 X재 수요량이 각 가격에서 50개 증가하여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0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t시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② t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25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③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60개이다.

④ t+1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5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⑤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의 사회적 한계 비용은 t시기보다 25만큼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 측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적 공급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의 차이를 구하고, 수요가 수평 이동한 뒤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t기의 사적 균형은 그래프에서 가격 80, 거래량 80이다.
t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40개이다.
t+1기에는 각 가격에서 수요량이 50개 증가하여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0개가 된다.
생산 측 외부효과는 매 시기마다 개당 일정액으로 동일하게 발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요곡선은 $P = 120 - 0.5Q$, 사적 공급곡선은 $P = 20 + 0.75Q$로 읽을 수 있다.
생산 측 음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MSC = MPC + MEC$이다.
개당 조세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면 조세는 MEC와 같아야 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수량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t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개에서 수요가격은 $120 - 0.5 \times 40 = 100$이다.
2. 같은 수량에서 사적 공급가격은 $20 + 0.75 \times 40 = 50$이다.
3. 따라서 생산 측 외부효과의 크기는 $100 - 50 = 50$이고, 이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50만큼 크다는 뜻이다.
4. t+1기의 수요는 각 가격에서 수요량이 50개 증가하므로 $P = 145 - 0.5Q$가 된다.
5. t+1기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MSC = 20 + 0.75Q + 50 = 70 + 0.75Q$이다.
6.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145 - 0.5Q = 70 + 0.75Q$에서 결정되므로 $75 = 1.25Q$, $Q = 6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t기의 시장 균형 거래량 80개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개보다 크므로 과다 생산이 발생한다. 이는 생산 측 음의 외부효과이다. 틀린 표현은 "긍정적 외부 효과"이고, 올바르게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② X
- t기의 외부한계비용은 25가 아니라 50이다. 생산자에게 부과할 피구세는 $MEC = 50$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개당 25만큼의 세금"이고, 올바르게는 "개당 50만큼의 세금"이다.

③ O
- t+1기의 사회적 최적 조건은 새 수요곡선 $P = 145 - 0.5Q$와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MSC = 70 + 0.75Q$의 교점이다. 계산하면 $Q = 60$이므로 옳다.

④ X
- 생산 측 음의 외부효과는 생산을 줄여야 하므로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내부화한다. 또한 크기는 50이더라도 지급 대상이 보조금이면 방향이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보조금을 지급"이고, 올바르게는 "개당 50만큼의 세금을 부과"이다.

⑤ X
- t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개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100이고, t+1기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 60개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70 + 0.75 \times 60 = 115$이다. 차이는 25가 아니라 15이다. 틀린 표현은 "25만큼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15만큼 크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수요 증가로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0개가 된다는 정보만 보고 사회적 최적 거래량도 단순히 40개에서 50개 늘어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외부효과의 크기 50은 그대로 두고, 이동한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을 다시 교차시켜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 측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사적 수요·공급식을 구하고, 주어진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 MSB와 MPC의 차이로 MEC를 구한 뒤, 수요나 공급 변화가 있으면 새 곡선과 MSC를 다시 교차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크면 생산 측 음의 외부효과이고, 교정 수단은 보조금이 아니라 외부한계비용만큼의 피구세이다.

NoteBase

문 14. 갑과 을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전량 투입하여 갑은 X재 10개 혹은 Y재 5개를 생산할 수 있고 을은 X재 5개 혹은 Y재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과 을이 모두 X재만 생산한다.

② 갑과 을이 모두 Y재만 생산한다.

③ 갑과 을이 각각 자신의 노동력을 1/2씩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한다.

④ 갑은 자신의 노동력을 1/2씩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을은 Y재만 생산한다.

⑤ 을은 자신의 노동력을 각각 1/3과 2/3로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갑은 X재만 생산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갑과 을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비교우위를 찾고, 그 비교우위에 맞게 노동이 배분된 조합만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 노동 전체 투입 시 X재 10개 또는 Y재 5개를 생산한다.
을: 노동 전체 투입 시 X재 5개 또는 Y재 10개를 생산한다.
갑의 X재 1개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고, 을의 X재 1개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따라서 갑은 X재에, 을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사용할 공식

생산가능곡선 위의 조합은 주어진 노동으로 더 이상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효율적 조합이다.
비교우위 판단은 기회비용으로 한다.
기회비용 = 포기하는 재화의 최대 생산량얻는 재화의 최대 생산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나누어 쓰므로, 같은 노동을 다른 재화 생산에 썼을 때 포기하는 양이 곧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갑의 비교우위: X재 10개 대신 Y재 5개이므로 X재 1개 기회비용은 Y재 $5/10 = 1/2$개이다.
을의 비교우위: X재 5개 대신 Y재 10개이므로 X재 1개 기회비용은 Y재 $10/5 = 2$개이다.
갑이 X재를 더 싸게 만들고 을이 Y재를 더 싸게 만들므로, 효율적 생산은 갑을 X재 생산에 먼저, 을을 Y재 생산에 먼저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갑과 을이 모두 X재만 생산하면 총 X재는 $10 + 5 = 15$개, Y재는 0개이다. 이는 경제 전체가 X재만 생산하는 끝점이므로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② O
갑과 을이 모두 Y재만 생산하면 총 Y재는 $5 + 10 = 15$개, X재는 0개이다. 이는 경제 전체가 Y재만 생산하는 끝점이므로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③ X
갑이 노동의 절반씩 투입하면 X재 5개와 Y재 2.5개, 을이 노동의 절반씩 투입하면 X재 2.5개와 Y재 5개를 생산한다. 합계는 X재 7.5개와 Y재 7.5개이다. 그러나 X재 7.5개를 갑이 생산하게 하고 을은 모두 Y재를 생산하면 Y재를 11.25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생산가능곡선 안쪽의 비효율적 조합이다.

④ O
갑이 노동을 절반씩 투입하면 X재 5개와 Y재 2.5개를 생산하고, 을이 Y재만 생산하면 Y재 10개를 생산한다. 합계는 X재 5개와 Y재 12.5개이다. 이때 X재는 비교우위가 있는 갑이 생산하고 을은 Y재에 전부 투입되므로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⑤ O
을이 노동의 1/3을 X재에, 2/3를 Y재에 투입하면 X재 5/3개와 Y재 20/3개를 생산한다. 갑이 X재만 생산하면 합계는 X재 35/3개와 Y재 20/3개이다. 갑을 먼저 X재에 전부 투입한 뒤 추가 X재를 을이 생산하는 구간의 조합이므로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두 사람이 각자 노동을 균등하게 나누면 자동으로 효율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점이다. ③은 두 사람 모두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하지만, 비교우위에 맞지 않게 을이 일부 X재를 생산하고 갑이 일부 Y재를 생산하므로 같은 X재 생산량에서 Y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사람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비교우위를 정한다. 그다음 생산 조합이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부터 배치한 결과인지 확인한다. 비교우위 배치로 같은 한 재화 생산량에서 다른 재화를 더 늘릴 수 있으면 그 조합은 생산가능곡선 안쪽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생산가능곡선 위는 '노동을 다 쓴 조합'이 아니라 '비교우위에 맞게 써서 낭비가 없는 조합'이다. 갑은 X재, 을은 Y재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표는 A국의 2023년~2025년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고 기준 연도는 2025년이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명목 GDP(억 원)	90	95	99
GDP 디플레이터	90	96	㉠

① ㉠은 99이다.

② 2024년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크다.

③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다.

④ 2025년 실질 GDP는 100억 원이다.

⑤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024년 대비 감소하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의 기준연도 값과 실질 GDP 공식, 물가상승률 비교를 이용해 각 설명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명목 GDP는 2023년 90억 원, 2024년 95억 원, 2025년 99억 원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ㄱ이다.
구해야 할 값: 2025년 GDP 디플레이터 ㄱ, 각 연도의 실질 GDP, 2024년과 2025년 물가상승률이다.
주의할 조건: 기준연도가 2025년이므로 2025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사용할 공식

GDP 디플레이터 공식은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이다.
따라서 실질 GDP는 실질 GDP=명목 GDPGDP 디플레이터×100으로 구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GDP 디플레이터-전년 GDP 디플레이터전년 GDP 디플레이터×100으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GDP 디플레이터가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준연도 202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므로 ㄱ=100이다.
2. 2023년 실질 GDP는 $\frac{90}{90} \times 100 = 100$억 원이다.
3. 2024년 실질 GDP는 $\frac{95}{96} \times 100 \fallingdotseq 98.96$억 원이다.
4. 2025년 실질 GDP는 $\frac{99}{100} \times 100 = 99$억 원이다.
5. 2024년 물가상승률은 $\frac{96-90}{90} \times 100 \fallingdotseq 6.67\%$이고, 2025년 물가상승률은 $\frac{100-96}{96} \times 100 \fallingdotseq 4.17\%$이다.

선지 판단

① X
- 틀린 표현: ㄱ은 99이다.
- 올바르게는 ㄱ은 100이다. 기준연도 202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100으로 놓는다.

② X
- 틀린 표현: 2024년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크다.
- 올바르게는 2024년 명목 GDP 95억 원은 실질 GDP 약 98.96억 원보다 작다.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은 96이므로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게 계산된다.

③ X
- 틀린 표현: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다.
- 올바르게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다. 실질 GDP가 2023년 100억 원에서 2024년 약 98.96억 원으로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 2025년 실질 GDP는 100억 원이다.
- 올바르게는 2025년 실질 GDP는 99억 원이다. 2025년 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명목 GDP 99억 원과 실질 GDP 99억 원이 같아진다.

⑤ O
- 2025년 물가상승률은 약 4.17%이고 2024년 물가상승률은 약 6.67%이다. 따라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024년 대비 감소하였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기준연도의 명목 GDP 99를 GDP 디플레이터 ㄱ으로 착각하게 하는 데 있다. 기준연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의 증가율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디플레이터 표가 나오면 먼저 기준연도의 디플레이터를 100으로 확정하고, 실질 GDP를 계산한 뒤, 성장률은 실질 GDP 변화율로 판단하고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터 변화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준연도 디플레이터는 100, 실질 GDP는 명목 GDP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기준이다.

NoteBase

문 16. 국민 소득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소득은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② 폐쇄 경제에서는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이 일치한다.

③ 중고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가사 노동, 봉사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국민 소득은 국민 순생산에서 간접세는 차감하고 정부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국민소득처럼 이름이 비슷한 국민소득계정 지표의 포함 범위와 조정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국민총생산(GNP):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국내 생산에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반영한다.
국민소득(NI):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해 요소소득 기준으로 나타낸 소득이다.
구별 축은 생산 장소인지, 생산 주체가 국민인지, 감가상각·간접세·보조금 조정을 했는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국내 총생산과 국민 소득은 동일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시장가치이고, 국민소득은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차감하고 보조금을 더한 요소소득 기준 금액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순해외요소소득, 간접세와 보조금 조정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은 서로 다른 국민소득계정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이다.

② O
폐쇄경제에서는 해외와의 요소소득 이동이 없으므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0이다. 따라서 국민총생산과 국내총생산이 일치한다.

③ O
중고품 거래는 과거에 생산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거래는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O
시장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사 노동과 봉사 활동은 생산 활동의 성격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관측되는 거래액이 없으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O
국민소득은 요소소득 기준의 지표이므로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차감하고 정부 보조금을 더해 구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국민소득 계산 방식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국내', '국민', '총', '순', '소득'이라는 용어를 모두 비슷한 총량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①은 GDP와 국민소득을 모두 경제 전체의 소득처럼 보이게 만들어 같은 금액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국내'는 장소 기준, '국민'은 국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총'은 감가상각 차감 전, '순'은 감가상각 차감 후로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은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요소비용 기준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국내 장소, GNP는 국민 주체, NI는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 차감·보조금 가산이다.

NoteBase

문 17.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의 명목 이자율은 A국이 연 8%, B국이 연 4%이다. 표는 A국과 B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이자 소득세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피셔 가설이 성립하고, 이자 소득세는 연간 명목 이자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단위: %)

구분	A국	B국
인플레이션율	5	1
이자 소득세율	10	10

① 조세 부과 전 정기 예금의 실질 이자율은 A국 상품이 연 -3%이다.

②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명목 이자율은 B국 상품이 연 3%이다.

③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실질 이자율은 A국 상품이 연 7.2%이다.

④ 조세 부과로 인해 B국 정기 예금 상품의 연 실질 이자율은 조세 부과 전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⑤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연 실질 이자율은 B국 상품이 A국 상품보다 0.4%p 높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셔 가설의 근사식과 이자소득세가 명목 이자액에 부과된다는 조건을 이용해 세전·세후 실질 이자율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 명목 이자율 8%, 인플레이션율 5%, 이자소득세율 10%이다.
B국: 명목 이자율 4%, 인플레이션율 1%, 이자소득세율 10%이다.
이자소득세는 연간 명목 이자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 이자율을 먼저 구한 뒤 실질 이자율을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피셔 근사식은 실질 이자율 ≈ 명목 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이다.
세후 명목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 (1-이자소득세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소득세율이 모두 주어졌고, 세금이 명목 이자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세전 실질 이자율:
A국은 8% − 5% = 3%이다.
B국은 4% − 1% = 3%이다.

세후 명목 이자율:
A국은 8% × (1 − 0.1) = 7.2%이다.
B국은 4% × (1 − 0.1) = 3.6%이다.

세후 실질 이자율:
A국은 7.2% − 5% = 2.2%이다.
B국은 3.6% − 1% = 2.6%이다.
따라서 세후 연 실질 이자율은 B국 상품이 A국 상품보다 2.6% − 2.2% = 0.4%*p* 높다.

선지 판단

① X
- 틀린 표현은 "A국 상품이 연 -3%"이다. 조세 부과 전 A국의 실질 이자율은 8% − 5% = 3%이므로 올바르게는 연 3%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B국 상품이 연 3%"이다. 조세 부과 후 B국의 명목 이자율은 4% × 0.9 = 3.6%이므로 올바르게는 연 3.6%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A국 상품이 연 7.2%"이다. 7.2%는 A국의 세후 명목 이자율이고, 세후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 5%를 뺀 7.2% − 5% = 2.2%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B국 정기 예금 상품의 연 실질 이자율은 조세 부과 전에 비해 0.8%p 하락"이다. B국의 세전 실질 이자율은 4% − 1% = 3%, 세후 실질 이자율은 3.6% − 1% = 2.6%이므로 하락폭은 0.4%p이다.

⑤ O
- A국의 세후 실질 이자율은 2.2%, B국의 세후 실질 이자율은 2.6%이다. 따라서 B국 상품이 A국 상품보다 0.4%p 높다는 설명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세후 명목 이자율과 세후 실질 이자율을 섞는 것이다. 특히 ③의 7.2%는 A국의 세후 명목 이자율일 뿐이며, 실질 이자율을 구하려면 여기서 A국 인플레이션율 5%를 빼야 한다. 또한 세금은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액에 먼저 부과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소득세가 있는 피셔 가설 문제는 세후 명목 이자율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율을 빼서 세후 실질 이자율을 구한다. 국가 간 비교는 같은 기준, 즉 세전끼리 또는 세후끼리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세금은 명목 이자에 먼저 적용되고, 실질 이자율은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을 빼서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저소득 국가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
ㄴ. 저축, 교육, 자본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ㄷ. AK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본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ㄹ. R&D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수렴 명제, 정부 정책의 역할, AK 모형, R&D 모형의 지식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생적 성장 이론은 기술 진보와 지식 축적을 경제 내부의 투자, 인적자본, 연구개발, 정책 요인으로 설명하는 성장 이론이다.
신고전파 성장모형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 때문에 일정 조건에서 수렴을 설명하기 쉽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은 지식·인적자본·외부효과 등으로 지속 성장을 설명한다.
AK 모형은 산출을 자본에 비례시키는 모형으로, 넓은 의미의 자본에 한계생산성 체감이 없으면 자본 축적만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R&D 모형의 지식은 비경합성이 핵심이고, 특허나 영업비밀 등으로 일정한 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완전한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보기별 판단

ㄱ X: 틀린 부분은 "저소득 국가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이다. 수렴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을 전제로 한 신고전파 성장모형의 대표적 함의이고, 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지식·인적자본의 내생적 축적으로 지속 성장과 성장률 격차를 설명한다.
ㄴ O: 저축, 교육, 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은 물적자본·인적자본·지식 축적을 바꾸므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장기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ㄷ O: AK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자본 축적이 계속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ㄹ X: 틀린 부분은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이다. R&D 모형에서 지식의 핵심 성격은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고, 지식은 특허 등으로 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완전한 비배제성을 항상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ㄷ 조합이다. ㄷ은 맞지만 ㄱ의 수렴 설명이 내생적 성장 이론의 일반 명제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ㄱ은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는 정부 정책, 지식 축적, 인적자본 축적 등이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ㄱ, ㄹ 조합이다. ㄱ은 수렴 명제를 내생적 성장 이론에 잘못 연결했고, ㄹ은 지식을 항상 비배제적이라고 단정했다. ㄹ은 "지식은 비경합성이 핵심이며, 배제 가능성은 제도와 보호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ㄴ, ㄷ 조합이다. ㄴ은 정부 정책이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의 특징이고, ㄷ은 AK 모형의 한계생산성 비체감 가정과 지속 성장 설명에 부합한다.
④ X: ㄱ, ㄴ, ㄹ 조합이다. ㄴ은 맞지만 ㄱ과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은 수렴 명제가 아니라 성장률을 좌우하는 내생적 축적 요인으로, ㄹ은 완전한 비배제성 단정이 아니라 비경합성을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ㄴ, ㄷ, ㄹ 조합이다. ㄴ과 ㄷ은 맞지만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ㄹ의 올바른 표현은 "R&D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지식 축적을 뜻하고, 지식은 비경합성을 갖지만 항상 비배제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수렴 명제와 내생적 성장 이론을 섞는 부분, 그리고 지식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한꺼번에 당연한 성질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특히 ㄱ의 "수렴"은 신고전파적 설명과 연결되고, ㄹ의 "비배제성"은 특허 등 제도적 배제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정하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생적 성장 이론 문제에서는 장기 성장률을 바꾸는 내부 요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정부 정책, 교육, 인적자본, 연구개발, 지식 축적은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이고, 단순한 저소득국 빠른 성장과 수렴 명제는 신고전파 성장모형 쪽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내생적 성장 이론은 정책·인적자본·R&D가 성장률을 바꾼다. AK는 한계생산성 비체감, R&D 지식은 비경합성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A국의 t년 인구는 100만 명이고 15세 미만 인구는 20만 명이며 실업자 수가 취업자 수의 25%인 12만 명이다. t+1년 실업률은 25%이고 생산 가능 인구 중 60%만이 취업을 하거나 구직 활동 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1년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는 전년과 동일하다)

① t+1년 고용률은 50%이다.

② t+1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32만 명이다.

③ t+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보다 높다.

④ t+1년 실업률은 t년 대비 5%p 상승하였다.

⑤ t+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t년 고용률과 같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t년과 t+1년의 고용 관련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t년 총인구는 100만 명, 15세 미만 인구는 20만 명이므로 생산가능인구는 80만 명이다.
t+1년에도 총인구와 15세 미만 인구가 같으므로 생산가능인구는 80만 명이다.
t년 실업자는 취업자의 25%인 12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48만 명이다.
t+1년 실업률은 25%이고, 생산가능인구 중 60%가 취업 또는 구직 활동 중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이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계산 과정

t년: 실업자 12만 명이 취업자의 25%이므로 취업자는 12/0.25 = 48만 명이다.
t년 경제활동인구는 48 + 12 = 60만 명이고, 실업률은 12/60 = 20%, 고용률은 48/80 = 60%이다.
t+1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80 × 0.6 = 48만 명이다.
t+1년 실업률이 25%이므로 실업자는 48 × 0.25 = 12만 명이고, 취업자는 48 − 12 = 36만 명이다.
t+1년 고용률은 36/80 = 45%, 비경제활동인구는 80 − 48 = 32만 명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t+1년 고용률은 취업자 36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80만 명으로 나눈 45%이다. 틀린 표현은 "50%"이고, 올바르게는 "t+1년 고용률은 45%이다"가 된다.
② O. t+1년 경제활동인구는 48만 명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80만 명에서 이를 뺀 32만 명이다.
③ O. t+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문제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60%가 취업 또는 구직 활동 중이라고 주어졌으므로 50%보다 높다.
④ O. t년 실업률은 12/60 = 20%, t+1년 실업률은 25%이므로 5%p 상승하였다.
⑤ O. t+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이고, t년 고용률은 48/80 = 60%이므로 서로 같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실업률의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로 착각하거나, 경제활동참가율 60%를 고용률로 바로 읽는 것이다. t+1년의 60%는 취업자 비율이 아니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지표 문제는 먼저 생산가능인구를 구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계산한 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20.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국과 B국 간 무역은 리카도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양국 모두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A국	B국
X재	25	120
Y재	50	80

① A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이다.

②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③ B국은 X재 30단위와 Y재 60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④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3이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1이면 A국은 X재 1단위당 Y재 1/2단위의 이익을 얻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도 모형에서 생산가능표를 이용해 기회비용, 비교우위, 생산가능 여부, 교역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은 노동을 모두 X재에 쓰면 X재 25단위, 모두 Y재에 쓰면 Y재 50단위를 생산한다.
B국은 노동을 모두 X재에 쓰면 X재 120단위, 모두 Y재에 쓰면 Y재 80단위를 생산한다.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므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은 최대 생산량의 비율로 계산된다.

사용할 공식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Y재 수량으로 계산한다.
$OC_X = \frac{Y_{max}}{X_{max}}$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X재 수량으로 계산한다.
$OC_Y = \frac{X_{max}}{Y_{max}}$
비교우위는 같은 재화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가 가진다.

NoteBase

계산 과정

A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50/25 = 2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25/50 = 1/2단위의 X재이다.
B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80/120 = 2/3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120/80 = 3/2단위의 X재이다.
따라서 B국은 X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A국은 Y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B국의 생산가능 여부는 $X/120 + Y/80 \le 1$로 확인한다. X재 30단위와 Y재 60단위는 $30/120 + 60/80 = 1$이므로 생산가능곡선 위의 조합이다.
B국이 X재를 수출하고 A국이 X재를 수입하려면 X재 1단위의 교역조건은 2/3Y 초과, 2Y 미만 범위에 있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A국에서 Y재 1단위를 생산하려면 X재 25/50 = 1/2단위를 포기한다. 따라서 A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이다.

② O
B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Y재 2/3단위이고 A국은 Y재 2단위이다. B국의 X재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③ O
B국의 생산가능곡선은 $X/120 + Y/80 = 1$이다. X재 30단위와 Y재 60단위는 $30/120 + 60/80 = 1$이므로 B국은 두 재화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④ O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3이면 X재 1단위가 Y재 3단위와 교환된다는 뜻이다. A국은 X재 1단위를 국내에서 얻을 때 Y재 2단위만 포기하면 되므로, Y재 3단위를 주고 X재를 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X
교환 비율이 1:1이면 A국은 Y재 1단위를 수출해 X재 1단위를 얻을 수 있다. A국이 국내에서 X재 1단위를 생산하려면 Y재 2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교역을 통해 X재 1단위당 Y재 1단위의 이익을 얻는다. 틀린 표현은 'Y재 1/2단위의 이익'이고, 올바르게는 'X재 1단위당 Y재 1단위의 이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A국의 Y재 1단위 기회비용인 X재 1/2단위를 교역이익과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교역이익은 국내 기회비용과 국제 교환비율의 차이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표가 나오면 먼저 각국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비교우위를 정한다. 그다음 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 생산조합은 최대생산량 대비 투입비율의 합이 1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카도 모형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다. 교역이익은 국내 기회비용과 국제 교환비율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21.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최근 A국 경제에 뚜렷한 경기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4%에서 2024년 6.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A국 정부는 이 현상을 총수요 변화에 따른 경기 변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은행의 ㉡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① ㉠: 소득세율 인상, ㉡: 기준 금리 인하

② ㉠: 법인세율 인하, ㉡: 공개시장 채권 매각

③ ㉠: 재정 지출 축소, ㉡: 지급 준비율 인상

④ ㉠: 재정 지출 확대, ㉡: 공개시장 채권 매입

⑤ ㉠: 재정 지출 확대, ㉡: 기준 금리 인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기침체 대응 정책: 총수요가 부족해 실업률이 상승할 때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로 총수요를 늘린다.
통화완화 정책: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나 공개시장 채권 매입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이자율 하락을 유도한다.
통화긴축 정책: 지급 준비율 인상, 기준 금리 인상, 공개시장 채권 매각은 통화량을 줄여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득세율 인상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소비와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실업률 상승 상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부적절하다.
- 기준 금리 인하는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기부양 방향이지만, ㉠의 소득세율 인상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소득세율 인상'이며, 올바르게는 '소득세율 인하' 또는 '재정 지출 확대'이다.

② X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총수요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경기침체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공개시장 채권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아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긴축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공개시장 채권 매각'이며, 올바르게는 '공개시장 채권 매입'이다.

③ X
- 재정 지출 축소는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실업률 상승 상황에서 적절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 지급 준비율 인상도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여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긴축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재정 지출 축소'와 '지급 준비율 인상'이며, 올바르게는 '재정 지출 확대'와 '지급 준비율 인하'이다.

④ O
- 재정 지출 확대는 정부가 직접 총수요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회복시키는 확장 재정정책이다.
- 공개시장 채권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며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통화완화 정책이다. 따라서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 정책과 ㉡ 공조가 모두 옳다.

⑤ X
- 재정 지출 확대는 경기침체 대응 정책으로 옳다.
- 그러나 기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통화긴축 정책이므로 실업률 상승을 완화하는 공조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기준 금리 인상'이며, 올바르게는 '기준 금리 인하'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을 하나씩 섞은 점이다. ②와 ⑤처럼 ㉠은 경기부양 방향이어도 ㉡이 채권 매각이나 금리 인상이면 통화긴축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가 제시되면 총수요 확대 방향을 먼저 찾는다. 재정정책은 지출 확대·감세,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지급 준비율 인하·공개시장 채권 매입이 같은 방향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침체에는 확대 재정과 통화완화, 과열에는 긴축 재정과 통화긴축이다. 채권 매입은 돈을 푸는 정책, 채권 매각은 돈을 거두는 정책이다.

NoteBase

문 22. A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화폐 중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한다. A국 중앙은행은 은행 예금에 대해 법정 지급 준비율을 20%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의 채권 매입을 통해 1,200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면 최종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금액은?

① 1,200달러

② 2,000달러

③ 2,400달러

④ 4,800달러

⑤ 6,000달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 보유 성향과 지급준비율이 함께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를 이용해 본원통화 공급 증가가 최종 통화량을 얼마나 늘리는지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민은 화폐 중 50%를 현금, 50%를 예금으로 보유하므로 현금-예금 비율은 $c = C/D = 1$이다.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r = 0.2$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공급한 금액은 1,200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 최종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증가액이다.
주의할 조건: 지급준비율만으로 단순히 $1/r = 5$를 적용하면 안 되고, 국민이 예금과 같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한다는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현금 보유가 있는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다.
$m = \frac{1+c}{r+c}$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이고, 예금 중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빠지며, 국민의 현금 보유가 예금창조를 줄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현금 50%, 예금 50%이므로 $C = D$, 따라서 $c = C/D = 1$이다.
2. 지급준비율은 $r = 0.2$이다.
3. 통화승수는 $m = \frac{1+1}{0.2+1} = \frac{2}{1.2} = \frac{5}{3}$이다.
4. 중앙은행이 1,200달러를 공급하면 최종 통화량 증가는 $1,200 \times \frac{5}{3} = 2,000$ 달러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2,000달러이므로 1,2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1,200달러 → 올바르게는 2,000달러이다. 1,200달러는 중앙은행이 처음 공급한 본원통화 증가액일 뿐 최종 통화량 증가액이 아니다.

② O
- 통화승수 5/3을 1,200달러에 곱하면 2,000달러가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금액은 2,000달러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2,000달러이므로 2,4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2,400달러 → 올바르게는 2,000달러이다. 2,400달러는 지급준비율 20%만 일부 반영하거나 현금 보유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④ X
- 계산 결과는 2,000달러이므로 4,8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4,800달러 → 올바르게는 2,000달러이다. 현금 보유가 있으면 예금창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승수가 5보다 작아진다.

⑤ X
- 계산 결과는 2,000달러이므로 6,0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6,000달러 → 올바르게는 2,000달러이다. 6,000달러는 현금 보유를 무시하고 단순 예금승수 1/0.2 = 5를 1,200달러에 곱한 값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지급준비율 20%만 보고 곧바로 단순 승수 5를 적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 문제에서는 국민이 화폐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유하므로 예금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줄고, 통화승수는 5가 아니라 5/3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창출 계산형 문제는 먼저 현금-예금 비율 c와 지급준비율 r을 분리한 뒤, 현금 보유가 있으면 $m = (1 + c)/(r + c)$를 적용한다.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입액에는 이 통화승수를 곱해 최종 통화량 증가액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 보유가 없으면 단순 승수는 $1/r$이고, 현금 보유가 있으면 통화승수는 $(1 + c)/(r + c)$이다. 현금 보유가 커질수록 예금창조와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NoteBase

문 23. 개방 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Q^D = 200 - P$이고, 공급 곡선은 $Q^S = P$이며 국제 가격은 40달러이다. A국 정부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수입량을 80단위로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단, Q^D, Q^S,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2,000달러

② 2,800달러

③ 3,000달러

④ 4,800달러

⑤ 5,600달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입할당제가 시행되었을 때 국내가격 상승분과 소비량 감소분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잉여 감소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D = 200 - P$, 공급곡선은 $Q^S = P$, 국제가격은 40달러, 수입할당량은 8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수입할당제로 인해 감소한 국내 소비자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개방경제에서 국제가격 40달러가 자유무역 가격이고, 수입할당 후에는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차이가 80단위가 되도록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사용할 공식

수입량은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값이므로 $Q^D - Q^S$이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가격이 40달러에서 60달러로 상승할 때 수요곡선 아래에서 사라지는 면적이다.
$\Delta CS = (60 - 40) \times 140 + \frac{1}{2} \times (60 - 40) \times (160 - 14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소비자잉여는 가격선 위,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므로 가격 상승으로 기존 소비 140단위에서 잃는 직사각형 부분과 소비량 160단위에서 140단위로 줄며 잃는 삼각형 부분을 더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유무역 가격은 국제가격 40달러이므로 수요량은 $200 - 40 = 160$, 공급량은 40이다. 자유무역 수입량은 $160 - 40 = 120$이다.
2. 수입할당 후 수입량은 80단위이므로 $(200 - P) - P = 80$이다.
3. $200 - 2P = 80$에서 $2P = 120$, 따라서 할당 후 국내가격은 $P = 60$이다.
4. 할당 후 국내 소비량은 $Q^D = 200 - 60 = 140$이다.
5.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60 - 40) \times 140 + \frac{1}{2} \times (60 - 40) \times (160 - 140) = 2,800 + 200 = 3,000$ 달러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00달러는 가격 상승폭 20달러와 소비량 변화 20단위만 곱한 값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2,000달러이고, 올바르게는 기존에 계속 소비되는 140단위에서의 손실 2,800달러와 소비 감소 구간의 삼각형 손실 200달러를 합한 3,000달러이다.

② X
- 2,800달러는 가격 상승폭 20달러를 할당 후 소비량 140단위에만 곱한 직사각형 손실이다. 틀린 표현은 2,800달러이고, 올바르게는 소비량이 160단위에서 140단위로 줄며 사라지는 삼각형 손실 200달러까지 더한 3,000달러이다.

③ O
- 수입할당 후 국내가격은 $(200 - P) - P = 80$에서 60달러가 되고, 소비량은 160단위에서 140단위로 감소한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2,800 + 200 = 3,000$달러이므로 ③이 맞다.

④ X
- 4,800달러는 자유무역 수입량 120단위에 가격 상승폭 40달러를 잘못 곱하는 식처럼, 가격 변화와 수입량 기준을 혼동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4,800달러이고, 올바르게는 가격 상승폭 20달러와 국내 소비량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3,000달러이다.

⑤ X
- 5,600달러는 가격 상승폭 40달러를 할당 후 소비량 140단위에 곱하는 식처럼, 국제가격 40달러 자체를 가격 상승폭으로 잘못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5,600달러이고, 올바르게는 가격 상승폭 $60 - 40 = 20$달러를 사용한 3,000달러이다.

계산 결과 국내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3,000달러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수입할당량 80단위를 곧바로 소비자잉여 변화에 곱하거나, 가격 상승 후에도 남아 있는 소비량 140단위의 직사각형 손실만 계산하는 것이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가격 상승으로 기존 소비자들이 더 내는 부분과 소비를 포기한 구간의 삼각형 손실을 함께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입할당제 계산형 문제는 먼저 할당 후 수입량 조건 Q^D-Q^S=할당량으로 새 국내가격을 구하고, 그다음 가격 상승 전후의 소비량을 비교해 소비자잉여 변화 면적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수입할당은 국내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잉여를 줄인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직사각형 손실과 삼각형 손실의 합으로 본다.

NoteBase

문 24. t시점 외환 시장에서 미국 통화 1달러는 한국 통화 1,500원과 교환되고 일본 통화 100엔은 한국 통화 1,000원과 교환된다. 3국 간 교차 환율 거래가 가능하다. 1년 후 외환 시장 변화로 미국 통화 1달러는 일본 통화 200엔으로, 미국 통화 1달러는 한국 통화 1,000원으로 교환된다면 t시점 대비 1년 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만 고려한다)

①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② 미국인 여행자는 일본보다 한국 여행을 선호할 것이다.

③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인 수입업자는 유리해질 것이다.

④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 제품보다 높아질 것이다.

⑤ 일본인 투자자가 한국과 미국에 동시 상장된 ☆☆전자 주식을 살 때 한국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통화의 교차환율을 계산해 원화, 달러, 엔화의 상대적 절상·절하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t시점: 1달러=1,500원, 100엔=1,000원이다.
1년 후: 1달러=200엔, 1달러=1,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t시점의 달러-엔 환율과 1년 후의 엔-원 환율이다.
주의할 조건은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만 고려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교차환율은 공통 통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구한다. 달러를 D, 엔을 Y, 원을 W라고 두면 다음과 같다.
$E_{D/Y} = \frac{E_{D/W}}{E_{Y/W}}$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므로, 원화를 매개로 달러와 엔의 상대가격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t시점에는 100엔=1,000원이므로 1엔=10원이다. 따라서 1달러=1,500원=150엔이다.
2. 1년 후에는 1달러=200엔, 1달러=1,000원이다. 따라서 200엔=1,000원이므로 100엔=500원이다.
3. 달러는 엔화에 대해 1달러=150엔에서 200엔으로 상승했으므로 엔화 대비 절상되었다.
4. 달러는 원화에 대해 1달러=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으므로 원화 대비 절하되었다.
5. 엔화는 원화에 대해 100엔=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했으므로 원화 대비 절하되었다. 즉 원화는 달러와 엔화에 대해 모두 절상되었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일본인 여행자는 엔화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에서 지출한다. 100엔으로 받을 수 있는 원화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으므로 한국 여행비가 엔화 기준으로 비싸진다. 틀린 표현은 "수가 늘어날 것"이고, 올바르게는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② X
미국인은 달러를 원화 또는 엔화로 바꾸어 여행한다. 달러로 받을 수 있는 원화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 한국 여행은 비싸지고, 달러로 받을 수 있는 엔화는 150엔에서 200엔으로 늘어 일본 여행은 싸진다. 틀린 표현은 "일본보다 한국 여행을 선호"이고, 올바르게는 환율만 보면 일본 여행을 더 선호하게 된다.

③ X
일본 수입업자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려면 엔화로 달러를 사야 한다. 1달러 가격이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랐으므로 미국 상품의 엔화 가격이 상승한다. 틀린 표현은 "유리해질 것"이고, 올바르게는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수입업자는 불리해진다.

④ O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 기준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 달러가 엔화에 대해 절상되면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낮아지고, 달러가 원화에 대해 절하되면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높아진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 제품보다 높아진다.

⑤ X
일본인 투자자가 같은 주식을 새로 살 때는 엔화 기준 매입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1년 후 엔화는 원화에 대해 더 크게 약세가 되어 원화 자산을 사는 비용이 크게 늘고, 달러 자산의 엔화 비용도 늘지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틀린 표현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유리"이고, 올바르게는 환율만 보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사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환율 숫자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보고 모든 상대국에 같은 방향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1달러=1,000원으로 달러가 원화에 대해 약세가 되었더라도, 동시에 1달러=200엔이 되어 달러는 엔화에 대해 강세가 되었다. 각 선지는 여행자, 수입업자, 투자자가 어느 통화를 들고 어느 통화를 써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 통화 환율 문제는 공통 통화를 기준으로 교차환율을 먼저 계산한 뒤,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통화와 지출할 통화를 연결해 판단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외국통화로 원화를 사는 문제이고, 수입업자는 자국통화로 결제통화를 사는 문제이며,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은 구매자 통화 기준 가격이 내려가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율 효과는 항상 "누가 가진 돈인가"와 "무엇을 사는가"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원화가 달러와 엔화에 대해 모두 강세이고, 달러는 엔화에 대해 강세라는 관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25. A국과 B국 간, B국과 C국 간에만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음은 2025년 A국~C국의 외화 지급액을 경상 수지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C국의 경상 수지 항목은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다)

(단위: 억 달러)

구분		A국	B국	C국
경상 수지	상품 수지	100	50	60
	서비스 수지	40	30	80
	본원 소득 수지	40	140	70
	(가)	0	175	0

① (가)는 해외 직접 투자액이 포함되는 항목이다.

② B국의 경상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③ 상품 수출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A국이 흑자이다.

④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B국이 적자이다.

⑤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A국과 C국 모두 적자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화 지급액 표에서 각국의 경상수지를 수취액 - 지급액으로 읽고, 경상수지 세부 항목의 포함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억 달러이고, 표의 수치는 각국의 외화 지급액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2. A국과 C국은 B국과만 거래하므로 B국의 외화 수취액은 A국 지급액과 C국 지급액의 합계가 된다.
3.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의 합계로 판단한다.

핵심 근거

B국의 외화 수취액은 A국 지급액 180과 C국 지급액 210을 합한 390이다. B국의 외화 지급액은 50+30+140+175=395이므로 B국의 경상수지는 390-395=-5이다. 따라서 B국은 5억 달러 적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근거 위치: 표의 (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이다.
- (가)는 이전소득 수지에 해당한다. 해외 직접 투자액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 "해외 직접 투자액이 포함되는 항목" → 올바르게는 "이전소득 수지가 포함되는 항목"이다.

② O
- 근거 위치: B국 열의 지급액 합계는 50+30+140+175=395이고, B국의 수취액은 A국과 C국 지급액 합계 180+210=390이다.
- B국 경상수지는 390-395=-5이므로 5억 달러 적자이다.

③ X
- 근거 위치: 상품 수지 행에서 A국의 지급액은 100이고, B국의 상품 지급액 전체는 50이다.
- A국은 B국과만 거래하므로 A국의 상품 수취액은 B국의 상품 지급액 중 A국으로 간 금액인데, 그 최대치도 50이다. A국의 상품 지급액 100보다 클 수 없으므로 A국의 상품 수지는 흑자가 될 수 없다.
- 틀린 표현: "A국이 흑자" → 올바르게는 "A국은 상품 수지에서 적자"이다.

④ X
- 근거 위치: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행에 포함된다. 서비스 수지에서 B국의 지급액은 30이고, B국의 수취액은 A국 40과 C국 80의 지급액 합계인 120이다.
- B국의 서비스 수지는 120-30=90으로 흑자이다.
- 틀린 표현: "B국이 적자" → 올바르게는 "B국은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이다.

⑤ X
- 근거 위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 행에 포함된다. 본원 소득 수지에서 A국과 C국의 지급액 합계는 40+70=110이고, B국의 지급액은 140이다.
- B국이 지급한 본원 소득 140은 A국과 C국의 수취액이 되므로, A국과 C국이 모두 적자라면 두 나라의 수취액 합계가 11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취액 합계는 140이므로 두 나라가 모두 적자일 수 없다.
- 틀린 표현: "A국과 C국 모두 적자" → 올바르게는 "A국과 C국 중 적어도 한 나라는 본원 소득 수지에서 흑자"이다.

오답 포인트

표가 지급액만 제시되어 있어 지급액 합계만 보고 수지를 판단하기 쉽다. 수지는 지급액 자체가 아니라 수취액 - 지급액이며, A국과 C국이 B국과만 거래한다는 조건을 이용해 상대국의 지급액을 수취액으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수지 표에서 지급액만 주어지면 먼저 거래 상대를 확인한다. 한 나라의 지급액은 상대 나라의 수취액이 되므로, 수지는 각 항목별로 상대국 지급액 합계에서 자기 지급액을 뺀 값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상수지 = 상품 + 서비스 + 본원소득 + 이전소득이고, 직접투자는 경상수지가 아니라 금융계정이다.

NoteBase